

## 독자와 함께

# “부모의 올바른 성교육이 최우선”

## ■ 임수진씨가 제안하는 아동 성폭력예방교육

신체구조·성에 관한 질문에 당황하지 말라  
갑자기 안하던 행동할 때 깊은 관심 가져야  
“안돼요 하지 마세요” 등 의사표현 반복연습



광주전남 해바라기아동센타는 지난 2월 광주시 서구 유·스퀘에서 '제4회 아동성폭력 주방의 날' 행사를 갖고 아동성폭력예방캠페인을 펼쳤다.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 역시 다른 친구의 신체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의사표현하고 “싫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부모와의 역할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통학로 근처의 도움을 청할 만한 곳(아동 안전지킴이 짐)을 미리 아동에게 알려주는 것도 현명한 대처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해자 역시 엄한 처벌과 치료가 병행된다면 피해자가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 해바라기아동센타 부소장

부산 여중생 이모(13)양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가 검거됨으로써 온 나라가 떨썩이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잔인할수록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솔방성이 처벌이라고 결심을 탓하고 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찰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들만의 잘못일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 모두의 잘못은 아닐까 반성해본다. 사실 필자도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 기관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는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일이, 내 가족의 일이, 우리 자녀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또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예방에 더 많은 초점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해자를 단순히 처벌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으로 어려서부터 성가치관과 올바른 성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도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듯이 각 가정에서도 자녀를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이 행해야 한다.

먼저 어린 자녀들에게는 신체구조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져 훈련스럽다면 반드시 이것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이 안전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아동이 갑자기 낮에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평소보다 부모에게 과도하게 매달리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리고 갑자기 성적인 놀이니 자위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아동과 차분히 대화를 나누어볼 필요가 있다.

피해사실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여성긴급전화 1366, one-stop 지원센터(062-232-3117) 또는 해바라기아동센타(062-232-1375)번으로 문의해도 된다. 학교, 통학로 근처의 도움을 청할 만한 곳(아동 안전지킴이 짐)을 미리 아동에게 알려주는 것도 현명한 대처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해자 역시 엄한 처벌과 치료가 병행된다면 피해자가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 해바라기아동센타 부소장



‘문패도 번지수도…’ 홍어삼합에 녹아드는 애잔한 노랫가락

## 코끝이 찡~ 톡 쏘는 ‘3박자 별미’

### ■ 광주시 두암동 ‘자연식당’

“문패도 없는 주막”은 뭐가 있을까? 광주시 북구 두암2동 831-5번지, 에덴병원 뒷골목의 ‘자연식당’(업주 박옥자)에는 문패가 없다.

홍어삼합과 매생이국에 막걸리 한 잔 하기 좋은 이집은 15년 전 문을 열 때부터 식당 간판을 내걸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집을 찾는 이들의 필요에 따라 ‘그때 그 집’ ‘홍어집’ ‘거시기 집’ 등으로도 불린다.

비라도 내리는 날, 우리네 아버지들이 모여 ‘목포의 눈물’이나 ‘번지수는 주막’ 등 고성진 트로트 한 소절 끝에나 있을 것 같은 ‘딱’ 그런 분위기다.

잘 익힌 돼지고기에 홍어와 묵은지를 물려 먹는 삼합을 잘 맛난다. 홍어는 철레산이기에 지방을 건 알지만 돼지고기와 묵은지는 팔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怍나무, 오가피, 표고버섯 등을 넣고 삶은 돼지고기

는 잡내가 전혀 없고, 맹글맹글하다.

땅에 향이리를 물고 세월이 맛을 익힌 3년 묵은지는 산해진미 부럽지 않다. 땅의 기운이 오랜 시간 익혀서인지 달고, 짭짜름하고, 매콤하고, 시원하고, 고소한 모든 음식의 맛이 난다. 묵은지 하나로도 밥 한 그릇 비우기 충분하다.

여기에 막걸리라도 한 잔 곁들인다면, ‘가난은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다’던 시인의 마음도 이해될 법하다.

홍어에 계란 옻을 입혀 지져낸 홍어부침 등 밀반찬도 정갈하다.

맛도 맛이지만, 시인과 회가들이 아무렇게나 식당 벽지 곳곳에 그리고 새긴 잡다한 글과 그림을 보는 재미도 쓸쓸하다.

제철 매생이와 생굴을 넣고 소복하게 끓여주는 매생이국은 속풀이에 그만이다. 홍어삼합(소) 2만5천원, 매생이국(소) 2만5천원. 문의 062-264-7121.

/글·시진=오광록기자 kroh@kwanju.co.kr



KT전남마케팅단(본부장 김상균)은 지난 17일 목포정보통신센터 주차장에서 금호타이어 구매 등 금호타이어 운동을 벌였다.

금호가 견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때문이다.

금호가 각고의 노력으로 기업 슬로건인 ‘아름다운 기업’으로 거듭나자 양보해 상생 방안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한다.

▲김명섭·KT전남마케팅단 업무지원부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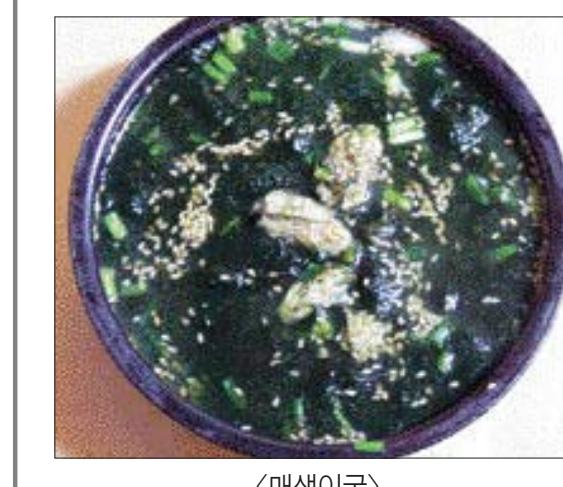
금호타이어 문제는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광주·전남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금호타이어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지역경제에서 금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에 KT전남마케팅단(단장 김상균)은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살리기 홍보활동을 벌웠다. 지역제품 사주기 캠페인 일환으로 금호타이어의 회생을 기원하며 KT사원은 물론 목포정보센터 입주기관인 국민연금공단, 녹십자생명 등 직원 100여명이 동참해 금호타이어를 구매했다.

최근 광주와 전남·북에서 3만여 명이 ‘호남의 마지막 기업’으로 기업을 살려달라’는 호소문에 서명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금호 살리기에 나선 것은



〈매생이국〉

### ▪ 찾아가는 길

무등도서관  
사거리  
→  
에덴병원  
정열사

자연식당

**Km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강 영 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로지(면/읍/면/리/리)			
지 역	소재지	면적/건물㎡	경쟁가
광주	신도면	4029/1218	34세대, 2천5백
광주	신도면	2977/900	2천3백
광주	신도면	2436/736	7천5백, 4천2백
광주	신도면	4950/1497	420, 2천1백
광주	신도면	2311/648	5천5백, 4천5백
광주	신도면	968/283	1억5천1백
광주	신도면	231/72	4천2백, 2천4백
광주	신도면	1082/321	294천
광주	신도면	715/216	1억5천1백
광주	신도면	1924/5808	1억5천1백
광주	신도면	7552/2244	5천5백
광주	신도면	1924/5922	1억5천1백
광주	신도면	5658/2591	4천5백, 3천5백
광주	신도면	5231/5930	6천5백, 3천5백
광주	신도면	6744/2040	2천
광주	신도면	39659/11999	2천5백
광주	신도면	2055/620	4천5천1백, 3천1천5백

로지(면/읍/면/리)

로지(면/읍/면/리)			
지 역	소재지	면적/건물㎡	경쟁가
광주	임대	1161/129	1억5천1백
광주	임대	330/155	950세대, 9천2백
광주	임대	207/236	1945세대, 1천5백
광주	임대	217/525	2474세대, 1억5천4백
광주	임대	158/136	450세대, 4천5백
광주	임대	755/2244	5천5백
광주	임대	1924/5922	1억5천1백
광주	임대	5658/2591	4천5백, 3천5백
광주	임대	5231/5930	6천5백, 3천5백
광주	임대	6744/2040	2천
광주	임대	39659/11999	2천5백
광주	임대	2055/620	4천5천1백, 3천1천5백

로지(면/읍/면/리)

로지(면/읍/면/리)			
지 역	소재지	면적/건물㎡	경쟁가
광주	임대	1161/129	1억5천1백
광주	임대	330/155	950세대, 9천2백
광주	임대	207/236	1945세대, 1천5백
광주	임대	217/525	2474세대, 1억5천4백
광주	임대	158/136	450세대, 4천5백
광주	임대	755/2244	5천5백
광주	임대	1924/5922	1억5천1백
광주	임대	5658/2591	4천5백, 3천5백
광주	임대	5231/5930	6천5백, 3천5백
광주	임대	6744/2040	2천
광주	임대	39659/11999	2천5백
광주	임대	2055/620	4천5천1백, 3천1천5백

로지(면/읍/면/리)

로지(면/읍/면/리)			
지 역	소재지	면적/건물㎡	경쟁가
광주	임대	1161/129	1억5천1백
광주	임대	330/155	950세대, 9천2백
광주	임대	207/236	1945세대, 1천5백
광주	임대	217/525	2474세대, 1억5천4백
광주	임대	158/136	450세대, 4천5백
광주	임대	755/2244	5천5백
광주	임대	1924/5922	1억5천1백
광주	임대	5658/2591	4천5백, 3천5백
광주	임대	5231/5930	6천5백, 3천5백
광주	임대	6744/2040	2천
광주	임대	39659/11999	2천5백
광주	임대	2055/620	4천5천1백, 3천1천5백

로지(면/읍/면/리)

로지(면/읍/면/리)			
지 역	소재지	면적/건물㎡	경쟁가
광주	임대	1161/129	1억5천1백
광주	임대	330/155	950세대, 9천2백
광주	임대	207/236	1945세대, 1천5백
광주	임대	217/525	2474세대, 1억5천4백
광주	임대	158/136	450세대, 4천5백
광주	임대	755/2244	5천5백
광주	임대	1924/5922	1억5천1백
광주	임대	5658/2591	4천5백, 3천5백
광주	임대	5231/5930	6천5백, 3천5백
광주	임대	6744/2040	2천
광주	임대	39659/11999	2천5백
광주	임대	2055/620	4천